

^^^ 햇살 좋은 집 하은·신우네 (2024년 7월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 22:2)

♣ 이곳 모습



감풍아라(Kg Ara) 마을 동네잔치에서

♣ 감사

1. 다니엘선교센터를 통해 감풍서물(Kg Semul)과 감풍아라(Kg Ara) 원주민교회에 쌀과 식용유 등의 긴급식량을 제공하고, 마을전도 잔치를 함께 감사
2. New Daniel Personal 훈련을 통해 뉴멤버와 팀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과 행정능력을 주심에 감사
3. 정글 원주민교회 지역개발을 위한 펀드가 조금씩 마련됨에 감사
4. 난민학교의 특별활동 수업을 담당하는 박&김 선생님부부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동역함에 감사

♣ 함께

5. 감풍펜나우(Kg Penyu), 감풍서물(Kg Semul) 교회 예배당 건축, 예배관련 설비, 부속건물수리, 상수도, 축구장, 원주민청년 농업사역을 위한 펀드를 위해
6. 감풍아라(Kg Ara) 목회후보자와 지도자 발굴과 훈련을 통해 현지화를 준비하도록, 동역하는 무사형제, 김&유 선생님 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7. 미얀마난민학교 단기사역을 오시는 박장로님과 소담교회 단기팀의 헌신, 필요, 행정 등이 잘 준비되고 현장과 좋은 협력사역이 일어나도록
8. 장기사역을 위한 MM2H 비자신청과 필요가 준비되도록

♣ 하은 & 신우 (고2)

9. 하은, 현재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주변의 사랑과 돌봄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
10. 신우, 고1 과정을 잘 마침에 감사. 방학기간 동안 운동, 독서, 영성 수련회 참여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 선교지에서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를 생각하며

방학을 맞이한 아들과 저녁 시간에 고전을 읽고 토론을 한다. 태어난 이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국내사역(안식년) 외에는 없다보니 매일 성경 큐티로는 모국어 이해에 한계가 있어서이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의 <북학의(北學議)>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조선의 것과 비교 관찰하여 집필한 견문 실학서이다. 그는 병자호란(1636) 이후 청나라를 멸시하는 풍조의 조선에서 중국을 본받아 상공업과 농경생활의 개혁을 통한 구국구민(九國救貧)의 길을 소신 있게 주장하였다. <북학의>에는 서문을 쓴 세 명이 있다. 그 중 서명응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현실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정에서 제도에 관한 책을 편찬할 때 술개나 개미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적었다.

당시 북학파는 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의리만 앞세운 교조적인 성리학자들의 북벌론(北伐論)은 안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고, 밖으로는 강대국 청나라를 따라갈 수조차 없었다. 북벌론은 권력을 가진 권문세가 양반관료들의 세력유지 수단일 뿐으로 조선 중후기 과거시험 합격자들은 몇몇 가문들이 독차지했다. 박제가의 근대의식은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일본이 조선과 맺은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강화도조약, 1876) 보다 90년이나 앞선 1786년에 임금께 올린 상소문 <학서양(學西洋)>에 나타난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서양 지식인들을 초빙하여 청년들에게 천문역법, 농사와 양잠, 의학, 건축, 광산, 배와 무기, 유리 제조, 과학 기술 등을 배우도록 요청했다. 북학파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는데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은 불교와 비슷하지만 천주교는 불교에 없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학과 과학이 있어 탄압할 이유가 없다.” 라 주장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실행되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근현대사는 대폭 수정되었을 것이다.

내 나이 쉰 중반이 되면서 정글우림이나 원주민 마을에 다녀오면 땀기나 풍토병, 피부병 등에 쉽게 노출되고 회복도 예전과 달리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이나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복음만이 그들의 당면한 문제와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다니엘선교센터’의 긴급식량지원으로 감풍아라(Kg Ara) 마을에 다녀왔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혼재하는 마을에서 촌장의 도움으로 동네잔치를 열었다. 주일 오전에 마을 공동체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오후에는 예배당에서 전도 축제를 하였다. 예배 후에는 가정별로 쌀, 식용유, 라면을 나누었는데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다른 종교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잔치였다.

행사 후 촌장의 막내 며느리가 원주민 중에서 극히 드물게 고등학교 졸업자로 성경공부를 이수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현지교단의 온라인신학과정에 참여하길 원했다. 중1인 손녀는 자신은 꼭 신학교를 가서 원주민마을 목회자가 되길 소원했다.

할렐루야~

2024년 7월 19일

행복한 잔치에서 김은유, 이보배 가정 올림

※ 후원방법

- 개인후원: 국민은행 049790-29-000045 OMF 김은유, 국민은행 606-21-1737-987 김기성
- 본부 연락처: 02 455 0261 OMF 한국본부 / 처음입금, 목적현금, 영수증 필요 시 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개인 연락처: 카톡 minamkks / 말레이시아 전화 60 149200232 / noah123@hanmail.net
- OMF 패밀리로 한국본부에 가입(월 오천 원 이상) 하시면 관련서적들과 선물을 보내드려요. (한국본부에 문의)